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6

[원문] 불재영산왕권구(佛在靈山黃遠求) 영산지재어심두(靈山只在汝心頭) 삼라만상시법신(森羅萬象是法身) 진불이반월삼승(眞佛而半月三尊) -관음사 전불전

[번역] 부처님은 영산에 계시니 멀리서 찾지 말고 영산은 오직 그대 마음속에 있네.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법신이며 진실한 부처님은 반달이요 세 별이아네.

[선행(禪解)] 봄은 산사(山寺)에 가장 먼저 온다. 어느 날 문득 아침 산문(山門)을 열면, 마당에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어느새 함박눈처럼 꽃망울이 터져 있다. 이렇듯 봄은 아무도 몰래 순식간에 온다. 잘 향내와 섞여 상큼하게 빛어내는 봄 냄새는 산승(山僧)의 마음을 푸근하게 적시는 것 같다.

겨울은 겨울이어야 제 맛이 있는데 올 겨울은 몇 차례의 추위말고는 따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팍한 일상 때문인지 산문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이 모든 게 다 경제 한 파(寒波) 때문이라 싶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시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주산 관음사는 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지은 절로 유서 깊은 사찰이다. 흥덕대왕으로부터 '칭해진 대사'라는 직함을 제수 받고 돌아온 장보고는 옛날 완도 도처봉이라는 주산에 올라 산 아래를 굽어보았다. 굽이굽이 뻗어 있는 산 아래 펼쳐진 절집이 떠 있는 섬들의 모습이 아득히 보였다. 한눈에 완도가 다 보였다. 장보고는 그 순간 이 자리가 명당 중의 명당임을 알고 절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그 자리를 관음사라 하였다.

그 때만해도 장보고는 중국에 법화원이라는 큰 규모의 절을 짓고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명당 중의 명당으로 불리는 관음사가 존재하게 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육신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육신을 관(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이를 잘 다스려야만 안식을 구할 수가 있다. 관음을 올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늘, 절을 찾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산에 있다고 주련은 밝히고 있다. 그럼, 그 영산은 어디에

꽃 한 송이도 부처임을 알라

있는 걸까? 바로 그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영산에 계시니 멀리서 찾지 말라' 하고 그 '영산은 오직 그대 마음속에 있다' 라고 당부하고 있다. 참으로 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선가(禪家)의 선구(禪句)는 짧은 문장 속에 광활한 우주의 법리(法理)를 안으로 품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그릇으로 따지면 쓰기에 따라 작은 종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저 바다와 같이 넓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 그릇이 커야 제대로 담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인간의 중심인데 어떤 마음의 그릇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道)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팔풍(八風)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있다. 팔풍이란 이(利)...

부처는 영산에 있고 영산은 자기 마음속에 있어

지옥과 극락 만들어내는 '팔풍' 벗어나야 道 완성

쇠(鐵) 화(火) 예(藥) 징(鐘) 기(鐵) 고(苦) 락(樂)을 말한다. 이는 정세가 유리함이나 득의(得意)의 상태, 쇠는 실의(失意), 화는 중상, 예는 명예, 징은 칭찬, 기는 비난, 고는 괴로움, 락은 즐거움을 가리킨다. 곧 마음이 이 여덟 가지를 관(觀)하여 때로는 '부처'를 만들고 '악마'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처가 되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만 부처를 멀리서만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부귀나 명예, 쾌락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보면 진정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을 위한 이해심과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관음사의 주련은 우리에게 진정한 불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법신이며 진실한 부처님은 반달이요 세 별이다' 라는 것이다.

길을 가다 만나는 꽃 한 송이, 바람 한 자락,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 해가 모두 부처라는 말이다. 이 모든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법신인데 우리는 어찌 이 모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사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이 아프면 함께 아프듯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괴롭고 아파하면 자신도 아파해야 한다. 반대로 중생이 즐

거우면, 자신도 아픈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진정으로 내인(內人)에 든 부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 마음이 지어내는 극락과 지옥에 대한 재미 있는 일화가 있다. 한 일본의 젊은 무사가 선사(禪師)를 찾아와 불경에 있는 아름다운 극락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선사는 당장 무사에게 "극락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자, 무사는 얼지구 좋아 선사를 따라 나섰다. 그 순간 선사는 발길을 돌려 그 무사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던 말이냐! 너는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냐?" 갑자기 뺨을 얻어맞은 검객은 어안이 병병했다. 거기다가 바보 취급을 받았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당장 선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만약,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무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을 베겠다고 했다. "꿀에 무사라고 자존심을 내 세우니, 벨 테면 베어라."

무사는 정말 화가나 눈이 칼을 들었다. 그 순간 벽력같은 목소리로 선사가 말했다. "잠깐 지금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대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순간 무사는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 선사는 '이게 극락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와 악마, 극락과 지옥이 함께 들어 있다. 주산 관음사의 주련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인방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6

마음의 눈 뜨면 일체가 부처

[원문]

心外無佛 何起佛見 遷相証惑 不能了本心 被他無情物 無自由 若也不信 自証無益.

마음 밖에는 부처가 있을 수 없는데 어찌하여 마음 바깥에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며, 서로 속여서 본심을 알지 못하고 저 무정물(無情物, 불상)에 얽매어 자유롭지 못하느냐? 만약 믿지 못한 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해설]

달마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 받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수행의 바른 길을 간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차원에서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으니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물질 세계는 인연에



원나라 조맹부의 '홍의담미도'.

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일 뿐입니다. 모든 물질은 1초에 99억 번 진동하는 에너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육신 또한 어제와 오늘, 1초 전과 1초 후가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기에 부처님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셨어요. 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 속에서 본 것이 진자가 아니듯 현실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면 허망하듯이 지나온 시절을 생각해 보면 허망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 역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데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 때문에 자꾸 휘둘립니다. '꿈은 달다' 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실상(實相)이 물질의 세계라는 인식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생명 그 자체인데 말미오, 달마 스님께서 '마음 밖에 불성이 따로 없다'고 하신 말씀도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 밖에는 부처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마음 바깥에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며 저 무정물(無情物)에 얽매어 자유롭지 못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주는 모양이 없는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차원에서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생명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부처'라 부르지요. 그 부처님을 우리가 선(禪)이라 부르기도 하고 불성(佛性)이니 진공(眞空)이니 진여(眞如)니 다양한 명사를 붙여놓았지만, 우주의 실상은 모양이 없

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도 49년 동안 법을 설하시고 한 마디도 설하지 않으셨다 하신 것입니다.

무정물 또한 사실은 무정물이 아닙니다. 불상은 오랫동안 나무를 건조시켜서 조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무가 말랐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무 자체도 생명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정물이라 언급한 것은 다만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실 생명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 마음에 계신 분을 향해 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불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실상의 부처님을 생각하며 절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본래 그

자리가 부처님이예요. 본래 내 마음 자리에 보면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부처이면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

문에, 우리는 부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야부(般若部)에 보면 우주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주는 모양이 없으니가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으니가 '실상 자리'에 마음을 두고 행을 하는 것이 곧 부처가 되기 전 수행인 보살행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보살행은 우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복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행은 그 상대와 인과(因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반면, 우주를 상대로 한 행은 그 복이 영원히 '새지 않는 복(無漏福)' 이 됩니다.

참한 불이라도 우주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참한 불이 나오기까지 태양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주어야 하고 일체가 우주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양을 하실 때에도 우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량한 복이 되겠죠. 우리가 '불자다' '불교를 믿는다' 했을 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주의 실상 진리를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신도분들이 불상을 마음에 두고 절을 한다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본래 마음 속에 있고 그 진리 차원에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化身佛)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 출현하셨던 분입니다. 우주 실상인 마음자리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법신불(法身佛)입니다. 부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름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삶의 고통 속에 존재감마저 상실했을지언정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세계질의 변화 속에서 새벽 여명의 절 마당을 쓸며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는 산승의 스님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날이 멀지 않음을 설파한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보낸다. 오늘도 물결 무늬를 쓸면서. 종현 스님의 산사에서 보내온 청량한 법문 편지. 종현 지음 / 255쪽 / 값 12,000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